

"행복한 대전 만들기"

# 2011 제3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 | 일시 | 2011년 6월 22일(수) 14시~16시
- | 장소 |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
- | 주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지역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 포럼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3:50~14:05	등록 및 개회 박노동(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
14:05~14:10	개회사 개회사: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14:10~14:15	환영사 및 격려사 환영사: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격려사:장시성(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장)
14:15~14:50	주제 발표 “여성·아동 피해보호·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50~15:20	사례 발표 “아동·여성이 행복한 명품 동작” 김미순(천주교 성폭력상담소장)
15:20~16:0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좌 장: 이현숙(대전지역상담소시설협의회 대표) 지정토론자: 김효수(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손정아(대전지역상담소시설협의회 총무)
16:00~	폐회 정리





## 2011 제3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참가자 명단

성 명	소 속	사무실
강수경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권부남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254-3038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	02-825-1272
김송희	대덕종합사회복지관 팀장	936-7343
김영아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상담원	
김은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530-3548
김태희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김학만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	630-9847
김호수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	609-2048
노연희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상담원	
노천수	대덕종합사회복지관장	936-7342
박노동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	530-3523
박선해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936-7344
박희윤	대전평화여성회	322-3533
배순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원장	631-5570
손정아	대전지역상담소시설협의회 총무	223-3534
신보미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소장	222-7042
염미영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사무소장	586-1983
유미	대전종합사회복지관장	627-2957
이숙자	대전광역시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대표	
이연신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대리	627-2957

성 명	소 속	사무실
이영아	대전YWCA여성의쉼터 소장	637-9045
이용란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장	636-2036
이유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530-3549
이현숙	대전지역상담소시설협의회 대표	526-4000
이혜경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936-7345
임영순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장	637-1366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3156-7133
정다영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사회복지사	488-2979
정유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전협의회장	223-5856
정정식	우리청소녀쉼자리 대표	226-6300
조진아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530-3522
채계순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장	254-3534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322-3533
최진영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위촉연구원	530-3550
편현옥	구세군정다운집 대표	585-1141
황미옥	다문화가족사랑회 실장	825-7233

## 2011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추진 위원회

성 명	소 속	E-mail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hyejinchu@naver.com
박노동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	labourbak@djdi.re.kr
김은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horaengi@daum.net
최진영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조원	choi_jin0e@naver.com

## 2011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 지역 공동체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전지역의 가족현상을 파악하고,
- 가족의 가치 확대와 가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전시민의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며,
- 변화에 적응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이끌어 내고,
- 건강한 가정과 미래경쟁력을 가진 대전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시민운동(New City Mov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011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1. 목 적 : 대전지역사회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의견 수렴
2. 방 법 : 전문가 및 대전 시민을 초청한 정규 포럼
3. 대상자 : 전문가 및 단체(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종사자, 가족복지사업 기관 종사자, 복지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연구자, 기업인, 종교인 등), 시의회 및 가족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
4. 효 과 : 지역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적 가족정책 수립 및 대전시,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문화 확산
5. 시 기 : 4회 예정(2011년)
6. 주 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주제발표

“여성·아동 피해보호·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전국 관계공무원 워크숍

# 여성·아동 피해보호·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목차

1절. 도입

2절. 정책모델 제안

3절. 아동여성보호 정책 분석

4절. 개선 방향 제안



# 1절. 도입

## 아동·여성 보호 관련 정책의 한국적 특색

- 1 사회적 주목을 받은 시기는 늦으나, 성폭력 범죄가 파렴치한 범죄 및 가해행위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성폭력 예방과 억제에 긍정적
- 2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루어짐.
- 3 가해자 처벌 강화의 법률 개정과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 주도의 정책들은 단기간의 성폭력 예방과 억제에 긍정적 환경 조성
- 4 2010년 6월 법개정은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내 역할,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적 특성, 지역사회의 책임 등 다차원적인 요인을 파악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
- 5 성폭력 발생 억제에는 폭력 유발 요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요인으로 지역내 빈곤, 시민의식, 성폭력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관행 개선 필요
- 6 여성과 아동을 위한 폭력 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 사회전체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대상 안전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음.

## 선행 연구의 결과

❖ 여성과 아동을 위한 폭력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개별적 개입 수준을 넘어, 지역연대 구성을 통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

- 최근 서구사회 중심 지역사회 거버넌스 시행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요구와 논의
  - 해당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적 개입과 통제
  -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 안전증진을 위한 주민간의 협조와 지역 사회의 능력 강화

### ❖ 논의의 결과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효율성 (collective efficacy)이 크다.(Sampson,1997)

## 선행 연구의 결과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Daro. D. & K.A. Dodge. 2009)

-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 지역내 유대 (social cohesion)가 강할수록
- ▶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 ▶ 지역공동체 차원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 2절. 정책 모델 제안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모델

수준	특성	폭력 유발 요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델
개인 (individ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나 가해자의 인성적 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자부심, 충동억제능력미약.</li> <li>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li> <li>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li> <li>개인상담프로그램</li> <li>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li> </ul>
개인간의 관계 (re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친구, 동년배 집단과의 관계 결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래집단과의 관계</li> <li>가족 소득의 급감</li> <li>가족구성원들의 건강문제</li> <li>부모의 방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교육 프로그램</li> </ul>
지역적 차원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자본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연결망 부족</li> <li>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연대</li> <li>NGO와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li> <li>학교에서의 폭력방지</li> </ul>
사회적 차원 (soci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통합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풍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폭력 예방교육</li> <li>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활동 강화</li> <li>빈곤의 해소, 소득격차의 감소</li> </ul>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모델

수준 발달단계	개인 Individual	개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지역적 차원 Community	사회적 차원 Societal
영아기 Infancy (0-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하지 않는 임신방지, 산전산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방문</li> <li>부모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 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수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감소</li> <li>소통격차 해소</li> </ul>
유아기 Early childhood (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발전 프로그램</li> <li>유아심화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심화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및 수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감소</li> <li>소통격차 해소</li> <li>미디어폭력 단속</li> <li>공공 캠페인</li> </ul>
아동중기 Middle childhood (6-1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멘토링 프로그램</li> <li>학부모 참여증진을 위한 학교-가정파트너십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나 다른 지역 활동으로 부터의 안전한 귀가길 제공</li> <li>교수 행위, 교육 정책, 안전을 포함한 학교 환경의 개선을 성인의 감시가 가능한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li> <li>특별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감소</li> <li>소통격차의 해소</li> <li>미디어폭력 단속</li> <li>공공 캠페인</li> <li>교육체계의 개혁</li> </ul>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모델

수준 발달단계	개인 Individual	개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지역적 차원 Community	사회적 차원 Societal
청소년기 (Adolescence) (12-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발전 프로그램</li> <li>개인 상담</li> <li>학교-가족 연계 프로그램</li> <li>지역내의 치료감호기관 개설</li> <li>학술 심화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멘토링 프로그램</li> <li>동료 중재나 동료 상담</li> <li>심각하고 만성적인 범법자 대상의 임시 위탁 간호 프로그램</li> <li>가족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나 다른 지역 활동으로부터의 안전한 귀가길 제공</li> <li>교수 행위, 교육 정책, 안전을 포함한 학교 환경의 개선</li> <li>과의 활동</li> <li>폭력집단 방지 프로그램</li> <li>폭력에 있어 고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식별하고 참조하기 위한 의료업 종사자 교육</li> <li>지역사회 경찰 활동</li> <li>비상 대응, 외상 치료, 의료 시설 접근성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감소</li> <li>소득격차 해소</li> <li>미디어폭력 단속</li> <li>공공 캠페인</li> <li>경찰과 사법 시스템 강화 및 개선</li> <li>교육 체계 개선</li> </ul>
성인초기 (Early Adulthood) (20-2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유인체계의 제공</li> <li>직업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직장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대상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구축</li> <li>지역사회 경찰 활동</li> <li>비상 대응, 외상 치료, 의료 시설 접근성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의 감소, 소득격차 해소</li> <li>공공 캠페인</li> <li>장기 실업자 대상 고용 창출 프로그램</li> <li>경찰과 사법 시스템 강화 및 개선</li> <li>교육 체계 개선</li> </ul>

# 3절. 여성·아동 보호 보호 정책 분석

## 개입 수준에 따른 여성·아동 보호 정책

수준	정책
개인 (individ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교정 프로그램</li> <li>해바라기 아동센터</li> <li>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운영</li> <li>여성 긴급전화 1366</li> <li>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li> <li>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li> <li>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법률 지원 사업</li> <li>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li> <li>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 쉼터</li> <li>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li> <li>위기청소년교육센터 운영</li> <li>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li> <li>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li> <li>이주여성 쉼터,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운영</li> </ul>
개인간의 관계 (re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부모 교육 · 상담 프로그램</li> <li>성폭력 피해아동 가족 지원</li> <li>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li> </ul>
지역적 차원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중심의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li> <li>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li> <li>아동·여성 안전지표 개발</li> <li>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li> <li>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li> </ul>
사회적 (soci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희롱/ 성매매/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li> <li>'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통한 캠페인 실시</li> <li>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취업제한 제도</li> <li>성폭력범죄자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li> <li>여성·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 운영</li> <li>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복권기금)</li> </ul>

## 현 지원 정책의 한계

- ❖ **개인적 수준 개입에 치중**
  - ▶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관계, 지역, 사회적 수준 중 개인적 수준에 대한 개입인 가해자 처벌강화에 치중
  - ▶ 가해자 처벌 강화 위주의 2010년 6월 법개정은 아동성폭력 발생 억제에 한계
- ❖ **사회적 발달단계 고려하지 않음**
  - ▶ 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정책 개입 필요
- ❖ **정책 집행에서의 파트너십 확대 필요**
  - ▶ 특정 단체나 전문가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약함.
  - ▶ 시민은 더 이상 공공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협력자로 변화되어야 함.



## 4절. 개선 방향 제안

### 1. 목표에 대한 공유

여성과 아동의 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목표에 합의하는가?

가해자 처벌 강화  
VS 인권 존중

#### ▶ 현행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 부처별 보고 안건 및 과제 이행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아동 안전에 관한 비전이나 정책 목표에 대한 논의나 합의 형성 절차 부족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인터넷 정보 공개시 인권 침해와 성범죄 예방 사이의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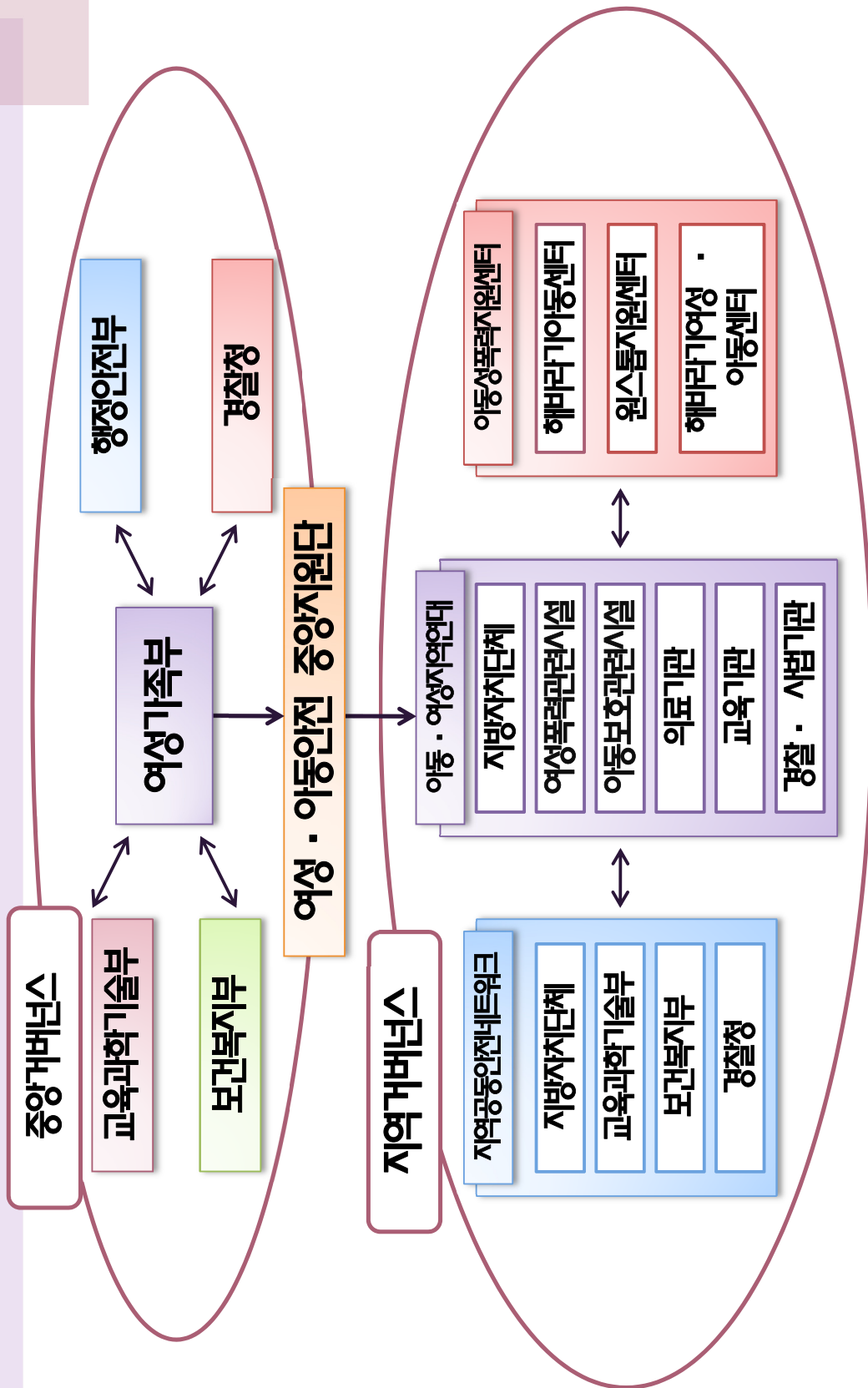
## 2. 역할 명확성 수준

여성과 아동의 안전정책에 있어 권익증진국의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가?

여성가족부 VS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업무 연계성강화 및 사업 중복성 해소 노력 필요
- ▶ 정책 비전을 공유를 위해 지속적인 공식·비공식의 의사 소통 강화 필요

# 여성·아동 안전 지역거버넌스 체계



## 여성·아동 안전 지역거버넌스 체계

### 현 지역연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제기

- ▶ 각 지자체에 지역연대 관련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가?
- ▶ 지역연대에 관한 협의체만 있고 회의 위주로 실효성 떨어짐.
- ▶ 해당부처들의 문제 해결 의지와 사후 조치가 부족
- ▶ 지역연대 혹은 협의체 구성 기관들이 하는 일을 모아놓은 것일 뿐 현재 이름에 걸맞는 사업이 없음.
- ▶ 지역연대는 지역내 서비스 제공기관 내 문제점이나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도 있어야 함.
- ▶ 사업의 의견수렴과 제안이 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함.

# 지역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평가지표

- ▶ 지역내 인구수, 아동수, 여성수 대비 성폭력상담소수, 상담건수
- ▶ 지역별 인구수, 아동수, 여성수 대비 가정폭력상담소수, 상담건수
- ▶ 지역별 인구수, 아동수, 여성수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 ▶ 지역내 인구수, 아동수, 여성수 대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수, 상담건수
- ▶ 연간 회의횟수
- ▶ 연계기관과의 연계횟수: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 원스톱지원센터,
  -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등)
  - 경찰·사법기관(경찰(지구대),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 아동양육시설
  - 아동그룹홈
- ▶ 지역별로 설치된 아동보호용 CCTV 확대 설치
  - 어린이보호지역, 아동보호구역
  -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
  - 방범용 CCTV의 목적추가
- ▶ 자율방범대 및 노인자치경찰대 구성여부, 구성인원
- ▶ 교육청과의 협약식(MOU)체결건수(지역내 초등학교)
- ▶ 경찰청과의 협약식(MOU)체결건수(지역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 지역내 사례관리되고 있는 돌봄 필요 아동수
- ▶ 지역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인원수
- ▶ 지역내 안전지킴이집 수(경찰청)
- ▶ 지역내 지역아동센터수
-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개별상담건수
- ▶ 지역내 배움터지킴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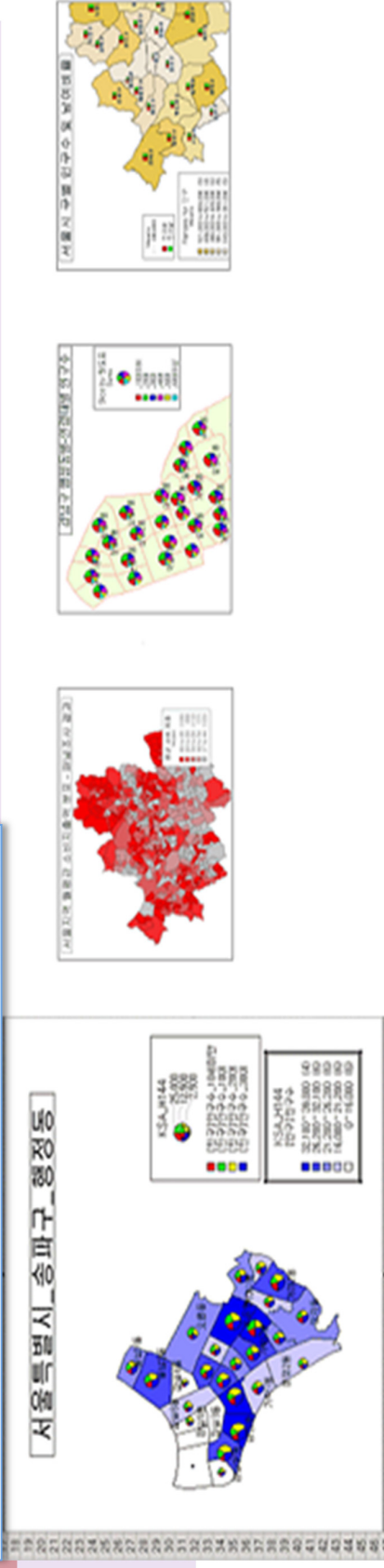
월단위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평가지표 입력 시  
지도를 통해 GIS지도로  
시군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예시 필요

# 지역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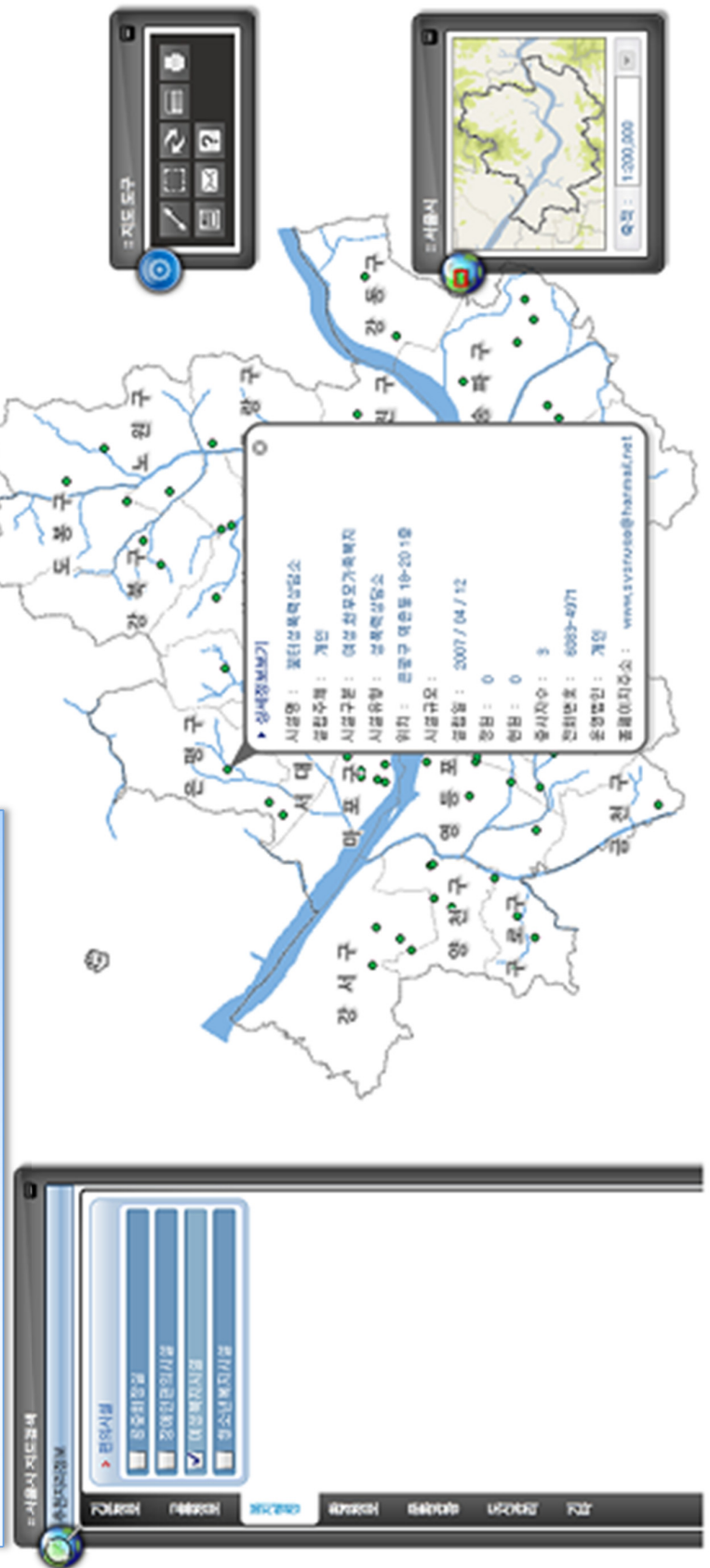
## 현 지역연대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제기

- ▶ 양적지표와 함께 질적지표도 포함이 되어야 함.
  - ✓ 단순한 교육 인원수 보다는 상담 단계별 교육 인원수로 세분화
  - ✓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 교육주체 및 대상자도 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 ▶ 총 상담인원 대비 사례관리수(초기 상담부터 사후 상담까지 과정에서)의 성과)도 중요

# 자동지도 맵핑화면 예시



# GIS 지도화면 예시



## 안전 지도, GIS 지도에 대한 문제제기

- ▶ GIS 대도시 스마트폰 이용자에 한한 것
- ▶ 새로운 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상회나 동별회의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 ▶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이나 TV 공익광고 등을 활용 파급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 개별화된 대안만으로는 한계 존재, 공동의 문제로 인식이 중요
- ▶ 지역내 안전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도입도 고려



## 안전 지도, GIS 지도에 대한 문제제기

- ▶ 안심거리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거리도 존재, 모두가 안심거리만 이용할 수는 없음.
- ▶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겨지는 문제점 발생 가능
- ▶ 기본적으로 모든 거리, 모든 공간은 안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분리시키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님

### 3. 폭력의 사각지대 해소 수준

정책의 파급효과가 모든 공간, 시간, 정책수혜자에게 미치는가?

보편적지원 VS 차등적 지원

- ▶ 시간적 사각지대
  - 등하교시, 학원·놀이터로 이동시 보호의 틈새가 있는가?
- ▶ 공간적 사각지대
  - 범죄 발생이 용이한 공간적 장소가 있는가? (CPTED는 여기에 집중)
  - 지역연대의 장소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
  - 매우 넓은 지역 단위인 경우 접근성, 친근성 떨어져 사각지대 존재 가능
- ▶ 인적 사각지대
  -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남겨진 아동이 있는가?
  - 시간적, 공간적 사각지대와 달리 인적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초보수준
- ▶ 세가지 의미에서 돌봄의 사각지대

나홀로 아동

## 나홀로 아동

- ▶ '나홀로'의 의미:
  - ▶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위주로 파악
  - ▶ 진정한 나홀로 아동의 의미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족구성원의 특성(조손, 편부나 편모 등)이나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상 특성(맞벌이)으로 인해 방과후나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아무런 돌봄을 받지 않고 홀로 남은 아동을 의미

## 기초지자체 아동·여성 안전 관련 실태조사 실시

- ▶ 「아동복지법」 제2조의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11)」
  - 2010년 현재 아동은 약 천만 명(10,004,000명)
  - 취학 전 아동(0세 ~ 7세) 3,619,000명으로 36.2%, 초등학생 연령대(8세 ~ 13세) 아동이 3,631,000명으로 36.3%, 14세 ~ 17세 아동이 2,754,000명으로 27.5%를 차지.
- ▶ 2009년 16개 광역시도 단위 교육청의 학교 단위 통계
  - 2010년 현재 초등학생 수 3,419,617명
- ▶ 통계청과 약 21만명 차이, 이 차이는 통계청의 추정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와 해당 연령대이지만,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
- ▶ 8세 ~ 13세의 연령대 인구 중 최소 94.2% 이상이 관련 교육 통계에서 초등학생으로 집계되는 만큼, 해당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을 위해서는 전국의 초등학생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조사의 포괄성과 효율성 모두에 있어 가장 효과적

# 아동성폭력 피해발생의 공간적 특성 분석

1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아동의 거주 지역 인근에서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즉, 아동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거주지 3km 반경 이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2

아동대상 성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선진국의 '등교시 보호자가 동행, 하교시 학교가 보호자에게 아동을 인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3

2008년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청소년 성범죄 발생 장소

- 성범죄 피해, 강간 미수-학교주변의 길거리, 친구나 친척의 집, 유흥·오락 시설
- 심한 추행- 가해자의 집, 유흥·오락시설, 공중화장실
- 가벼운 추행-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4

대중매체의 보도

- 아동의 생활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계층적 요인이 밀접하게 관련
- 사고의 위험이 모든 사회집단과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 환경에 집중되어 있음.

5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 구역·지역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에 차이 존재
- 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 내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에 더 취약

6

최근 사건을 보면 피해 아동이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지역사회 공간과 범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동주택 건설 및 도시설계와 개발시 부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고려될 필요 있음.

## 4. 자원 확보 수준(재원, 인력, 시간)

행위자들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인력, 시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자원의 선택 VS 자원의 집중

- ▶ 지역차원의 안전망 구축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인식·지원 부족으로 여성가족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중
- ▶ 현재 244개 지역연대 중 소수만 활성화, 대부분 회의체만 구성
- ▶ 지자체의 관심부족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유인책 부재
- ▶ 전국 244개 시·군·구에 지역연대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여성폭력관련 타 업무와 중복적으로 수행중

## 5.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성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Multi agency partnership)가 잘 이루어지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가?

수평적 협력 VS 수직적 조정

- ▶ 정책 대부분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추진, 시설별·사업별로 구분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연계 어려움.
- ▶ 지역연대는 중복된 정책의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
- ▶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기능 강화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활성화 필요
- ▶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경찰, 검찰의 효율적 연계 필요
- ▶ ‘여성폭력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연계기능 개선 필요

# 가계회계



# 사례발표

“아동 · 여성이 행복한 명품 동작”

김 미 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



표클  
리러시  
사례 발표

# 아동·여성이 행복할 명품 동자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김미순

# - 목 차 -

1. 지역 인프라 현황

2. 아동-여성이 행복한 동작구 만들기

3. 지역 연대 추진 성과

4. 지역 연대 추진 중 사업

5. 앞으로 과제

# 지역 인프라 현황

1

# 지역 인프라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 6
-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문화의집 : 2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아이돌보미사업기관
-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 6

## 아동관련 시설 (288개)

- 보육시설 : 189
- 아동복지시설 : 24  
(지역아동센터 : 20)
- 유치원 : 32
- 초등학교 : 20
- 중학교 : 23

## 여성복지시설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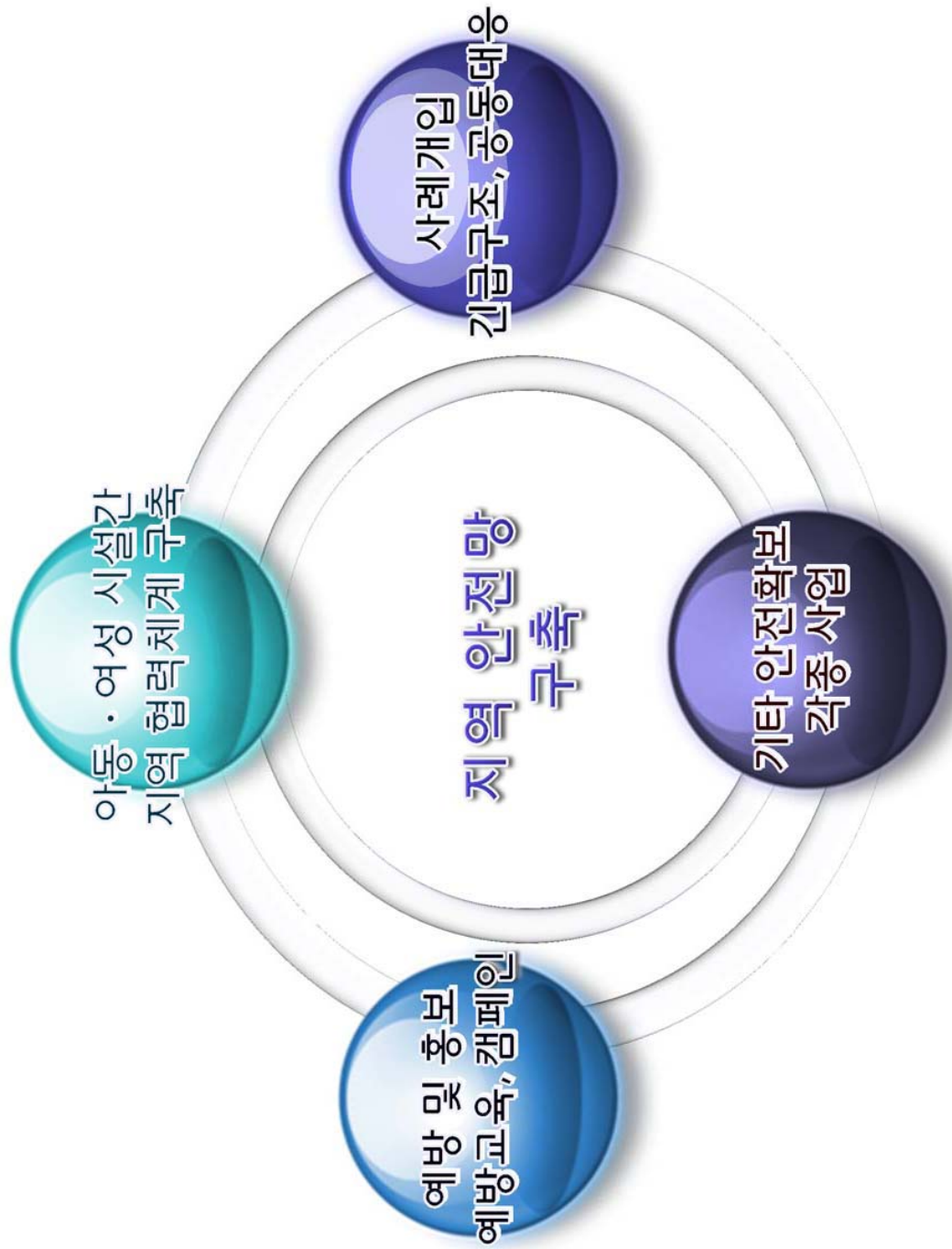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2
- 성매매피해상담소 : 1
- 성폭력 상담소 : 3
- 원스톱지원센터 : 1

## 지역 인프라

## 기타연계기관

- 경찰서 1, 지쿠대6, 치안센터9, 관제센터1, 피출소2
- 119안전센터 4
- Wee센터 1, 돌봄교실 39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동작복지재단
- 동작자원봉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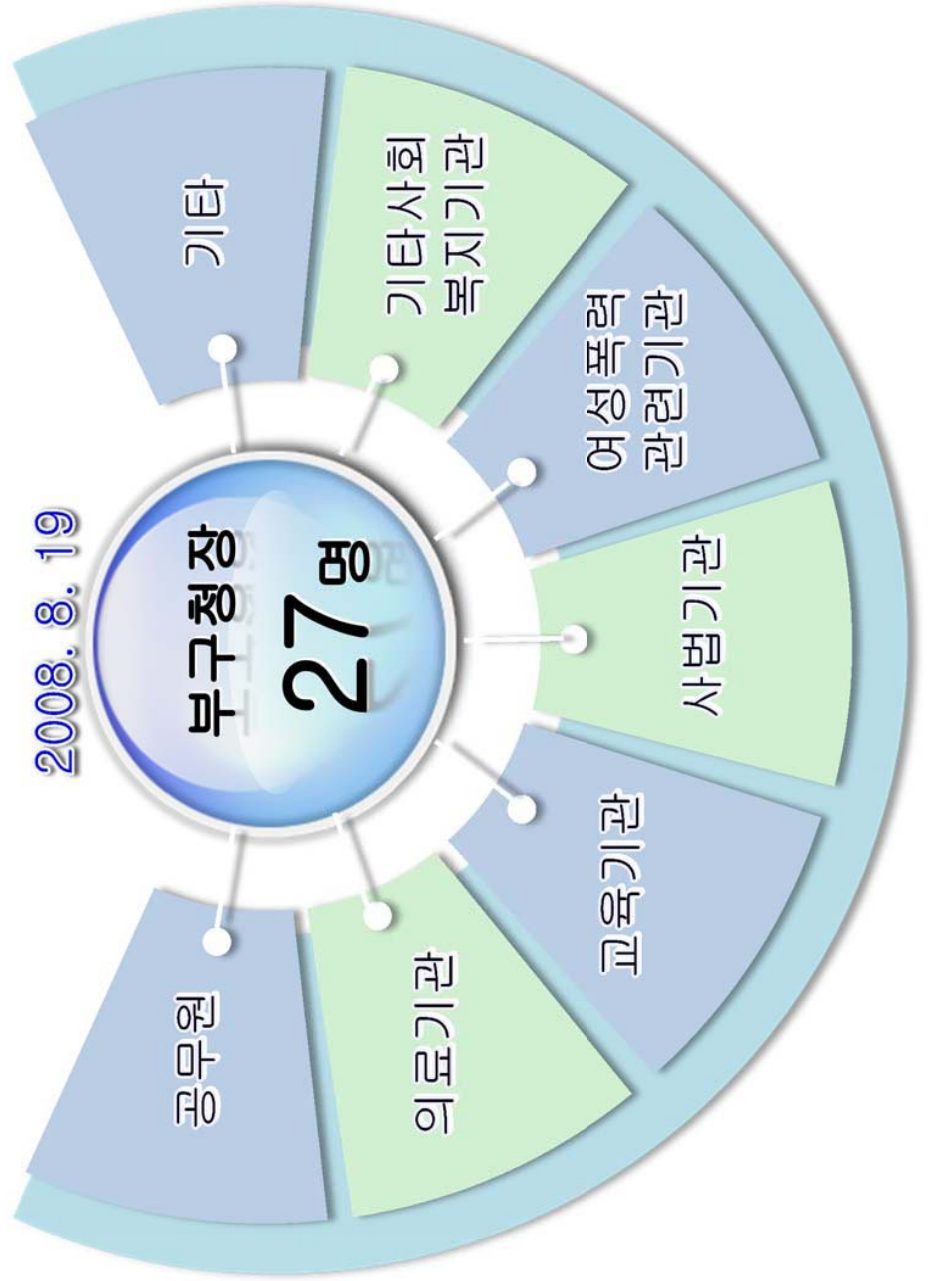
## 지역 인프라 현황





# 지역 인프라 현황

##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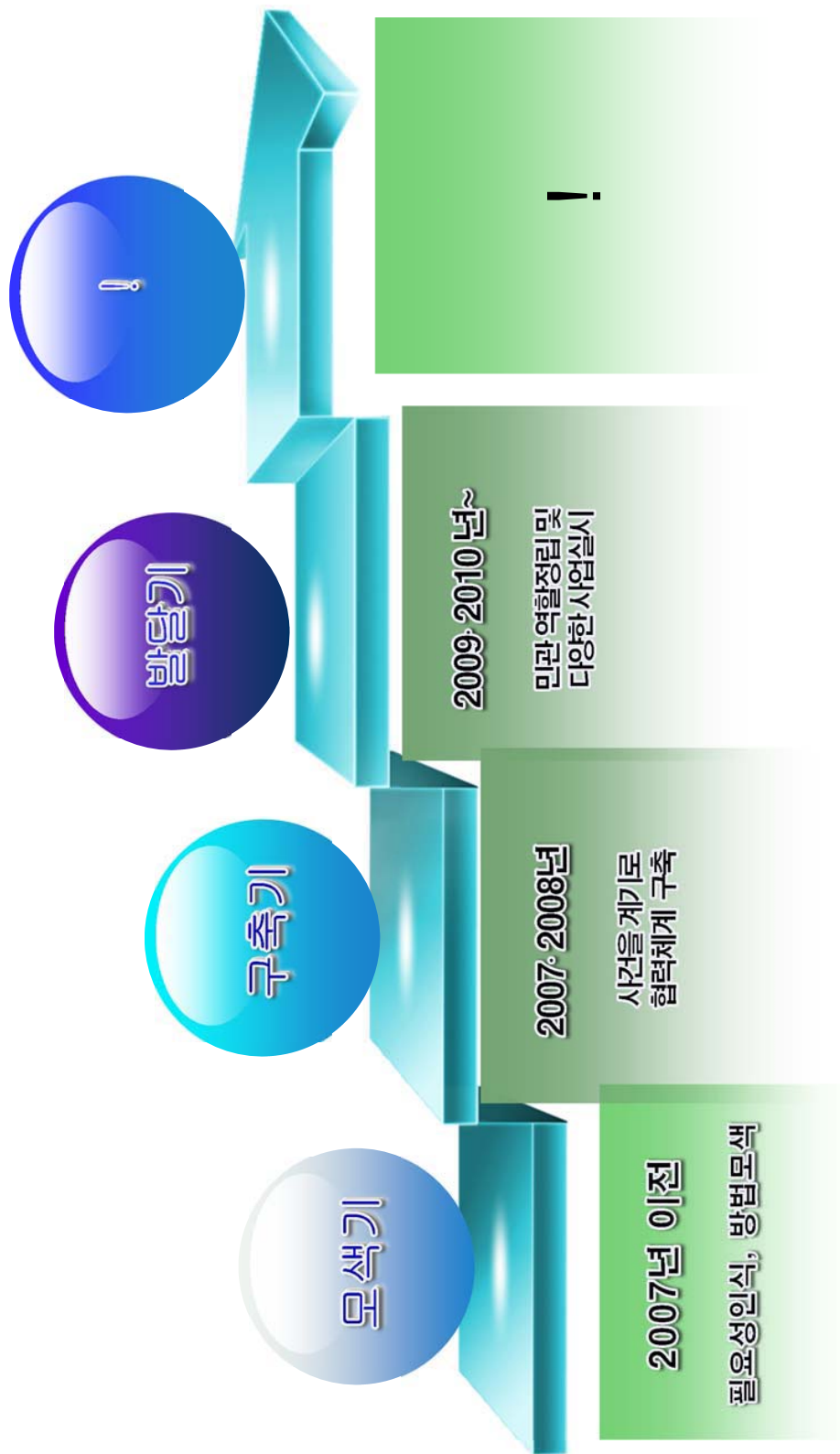




아동-여성기 행복한 동작구 만들기

2

# 지역 연대 구축 발달 과정



**배 경**

▶ 경찰 누장 대응 집단 성폭력 사건 발생

▶ 제12회 여성주간 행사 민관협력 추진

## 아동-여성이 행복하듯 동작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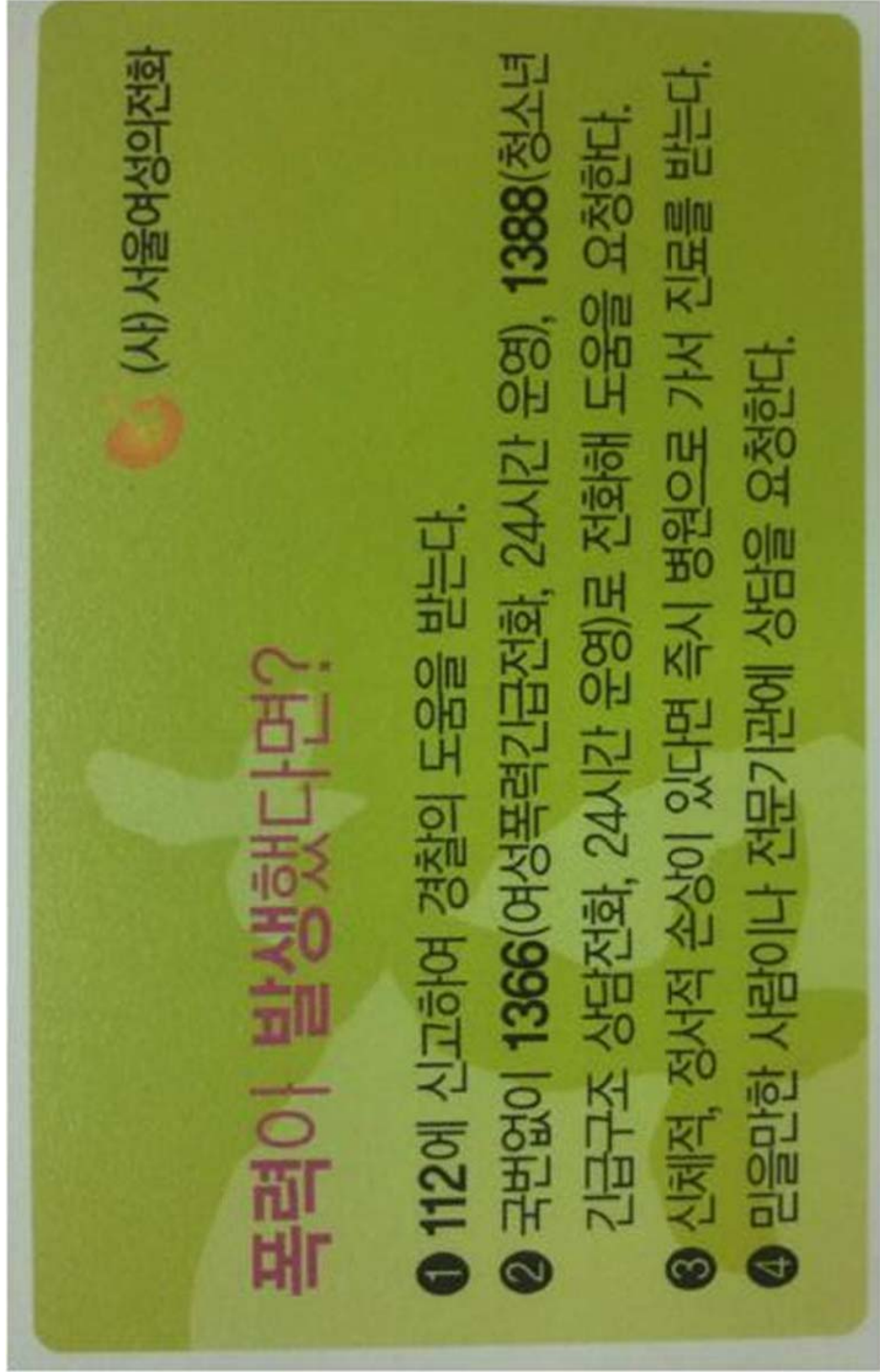
### 경찰 누장 대응 집단 성폭력 사건 발생

2007년 3월 13일 새벽,  
20대 여성의 실종 신고에 “담당 업무가 아니다” 는  
이유로 누장 대응하여 집단 성폭력 발생

경찰 능력 대응 집단 성폭력 사건 의의

- 동작구 민간 대책위원회 구성(7기관)
  - 동작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과 민간 지역단체 간담회 2회 실시
  - 동작 경찰서와 민간 협의 여성폭력 방지 및 대처를 위한 명함 제작
- : 각 지구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 시 전달

## 동작 경찰서·민간 협의 명함 제작 및 배포



(사) 서울여성의전화

### 폭력이 발생했다면?

- 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 ② 국번없이 **1366**(여성폭력긴급전화, 24시간 운영), **1388**(청소년 긴급구조 상담전화, 24시간 운영)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신체적, 정서적 손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
- ④ 믿을만한 사람이나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 아동-여성이 행복한 동작구 만들기



2007년 제12회 여성주간 행사 민·관협력 추진

•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여성주관 행사를

최초로 민관협력으로 개최

: 지역 민간 단체 20개 기관 참여로 기획

But! 관 주도로 변질, 10개 기관만 참여, 진행

☞ 2008년부터 민간 주도로 이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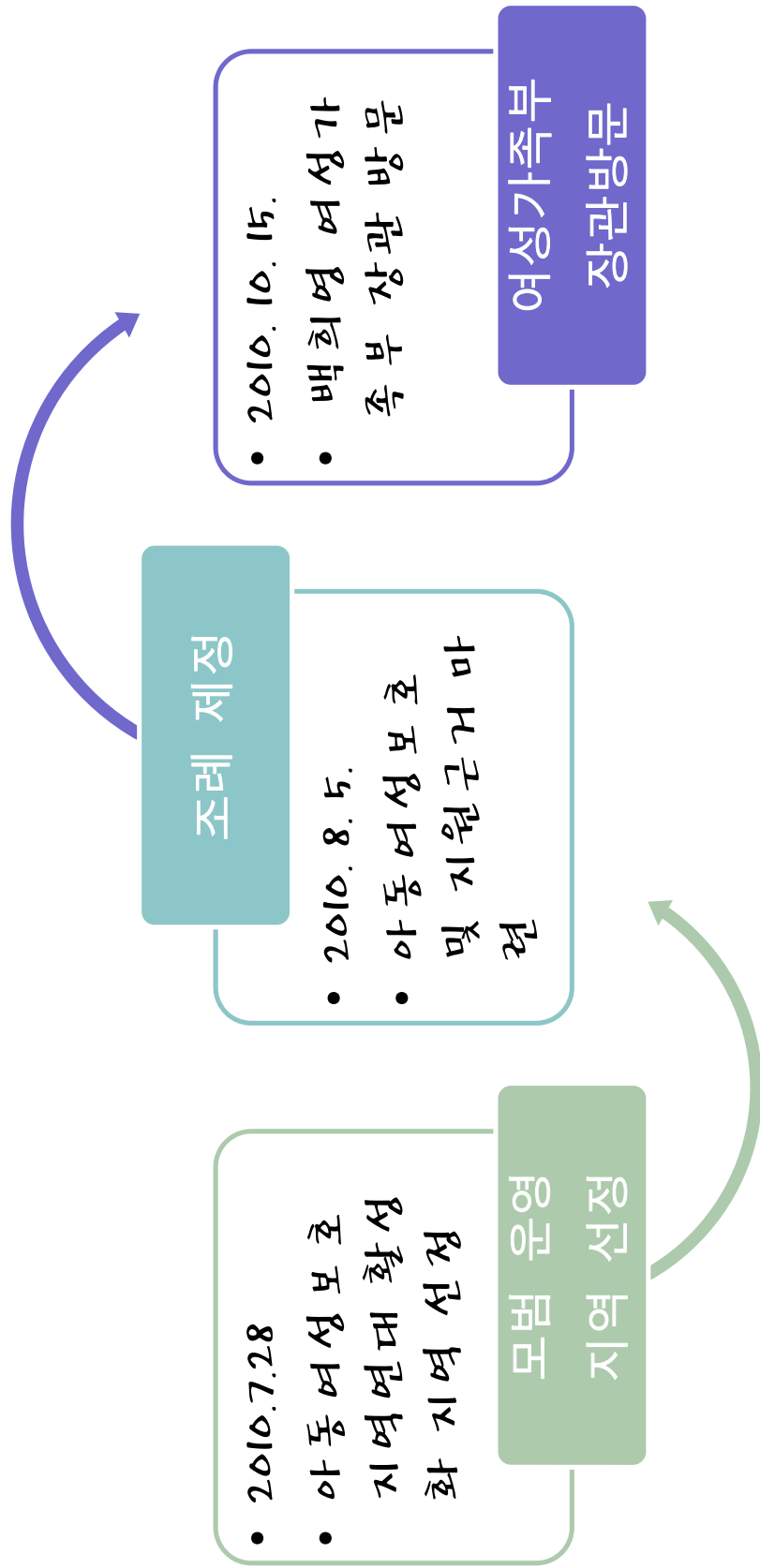
# 아동-여성이 행복한 동작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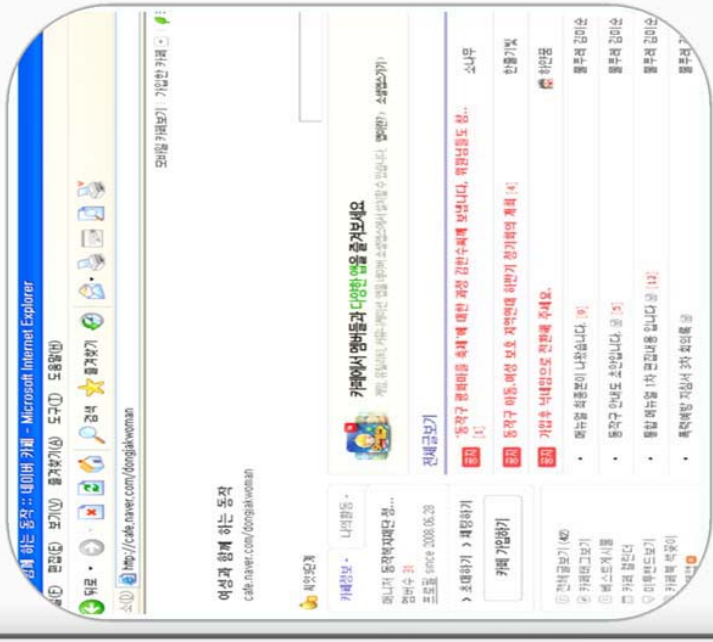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3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지역연대 모범 운영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온라인 카페 운영



주소 : [café.naver.com/dongjakwoman](http://café.naver.com/dongjakwoman)

기능 : 자유로운 형식의 회의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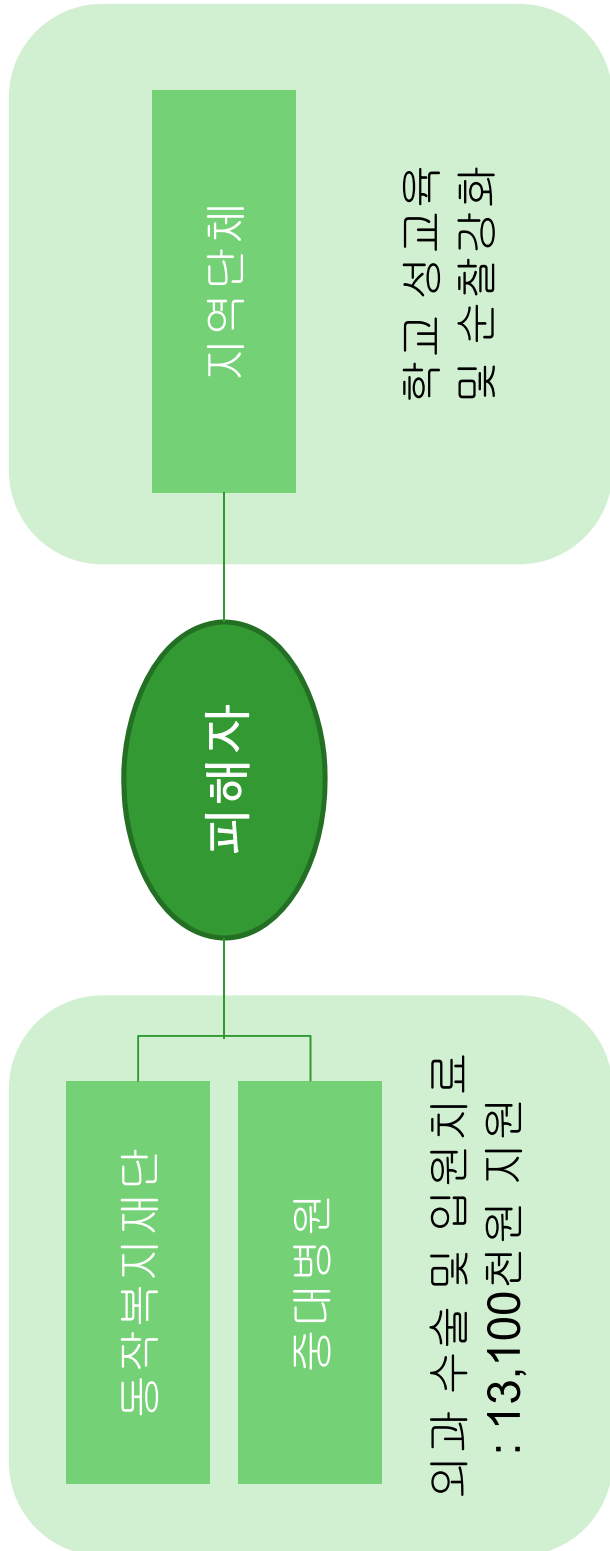
긴급한 안건토의

각 기관별 협조사항 등 정보공유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성폭력 미수 및 상해 피해 어린이 지원

## • 지역 사례회의

: 동작구 소재 초등학교 후문에서 여학생 성폭행 미수 및 상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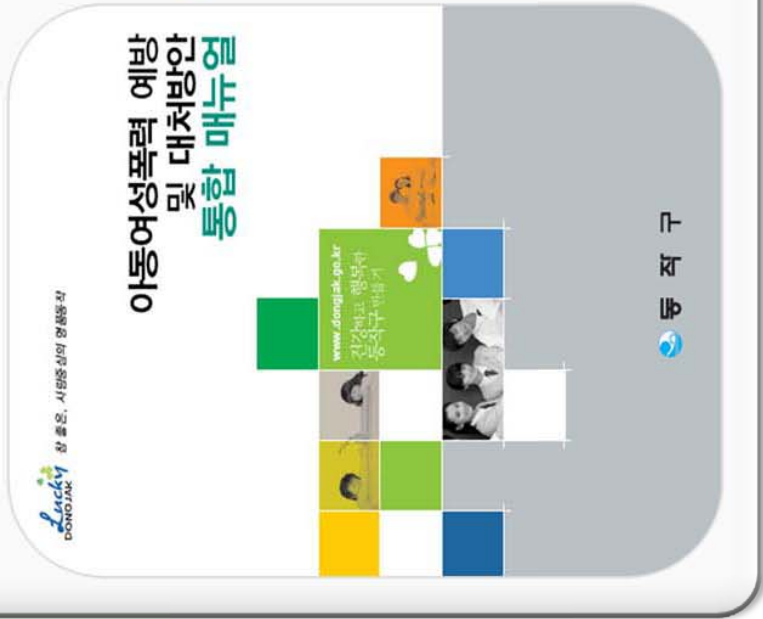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아동-여성성폭력예방 통합 매뉴얼 제작



## 아동여성성폭력예방 통합매뉴얼 제작

- 제작기간 : 2010. 7. ~ 10.
- 제작부수 : 2,500부
- 내 용 : 정의, 가해자특성, 대처방안, 신고 및 주의사항 등
- 활용내용 : 관내 초·중·고교, 이용시설 여성·아동시설 등 배포



아동여성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통합 매뉴얼

www.dongjak.go.kr  
건강하고 행복한  
동작구 만들기

동 작 구

### 성매매에 대한 생각들!

“남자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는 사회의 필연악이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문화적 환경에 따라 성욕의 발산과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남자의 성욕은 조절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법으로 금지시키니 성폭력이 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매매가 확대될수록, 성폭력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성매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해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 구매한 자가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이다. 성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미 돈을 주고 여성을 샀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산 물건처럼 여기게 된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많다. 서로 하고 싶어서 하는 상관계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해주어야 하는 상관계는 당사자에게는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된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면 '인간다움', 즉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다.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벌다”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온 것이 성산업이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밥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 강요로 인한 질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쌓여가는 빚에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매매가 필요하다”  
성매매근점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진반이 성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지표이다. 성산업과 같은 포락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통해 불법 집단의 성장은 곧 지하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태극처럼 국민생활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성매매관광산업국'이라는 국가적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함을 기억해야 한다.

내 5만원엔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연나는 40만원의 순이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1회 이상의 시간과 걸근을 하게 되면 40만원은 온데 간데 없고 빛만 지게 됩니다.

성매매업자 집결지 여성은 '쇼타임' 성매매 1회에 평균 5만원을 받습니다. 하루밤에 약 6명의 성구매자를 상대한다는 통계에 따라, 한 여성의 한 달 수입을 약 900만원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 900만원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아동-여성 안전지킴이

## 명품동작 안전지킴이



- 19:00~24:00(5시간)
- 130명
- 성폭력범죄특별관리지역, 우범지역 등야간순찰

## 배움터 지킴이 배치



- 초등 20개교, 20명
- 중등 16개교, 16명

##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 20개교
- 3,378명 봉사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아동-여성 안전지킴이



## 아동·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 기 간 : 2010. 3. ~ 11.
- 장 소 : 초등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
- 내 용 : 아동여성보호 홍보내용으로 제작된 물티슈 등 홍보물물 배포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홍보용 엽서 사진



# 양성평등 인식 확산,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홍보용 엽서 사진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 인식 개선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홍보용 엽서 사진



#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통념 바로잡기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홍보용 엽서 사진



#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피해상담 및 지원시설 안내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홍보용 엽서 사진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  
우리가 활짝 피워야 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입니다.
- 성희롱 없는 즐긴고 맑은 일터를 위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성희롱사건 상담·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동지구청 가정복지과



# 성희롱의 개념과 인식 개선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기타

평화마을축제  
“평화야놀자”

길 위에서 심  
대여성 만나  
기 ‘틴모빌’

마을속비폭력  
배움터

- 장 소 : 보라매공원, 여성플라자
- 내 용 : 성폭력활동가 양성교육,  
길거리 예방교육 실시  
안전지수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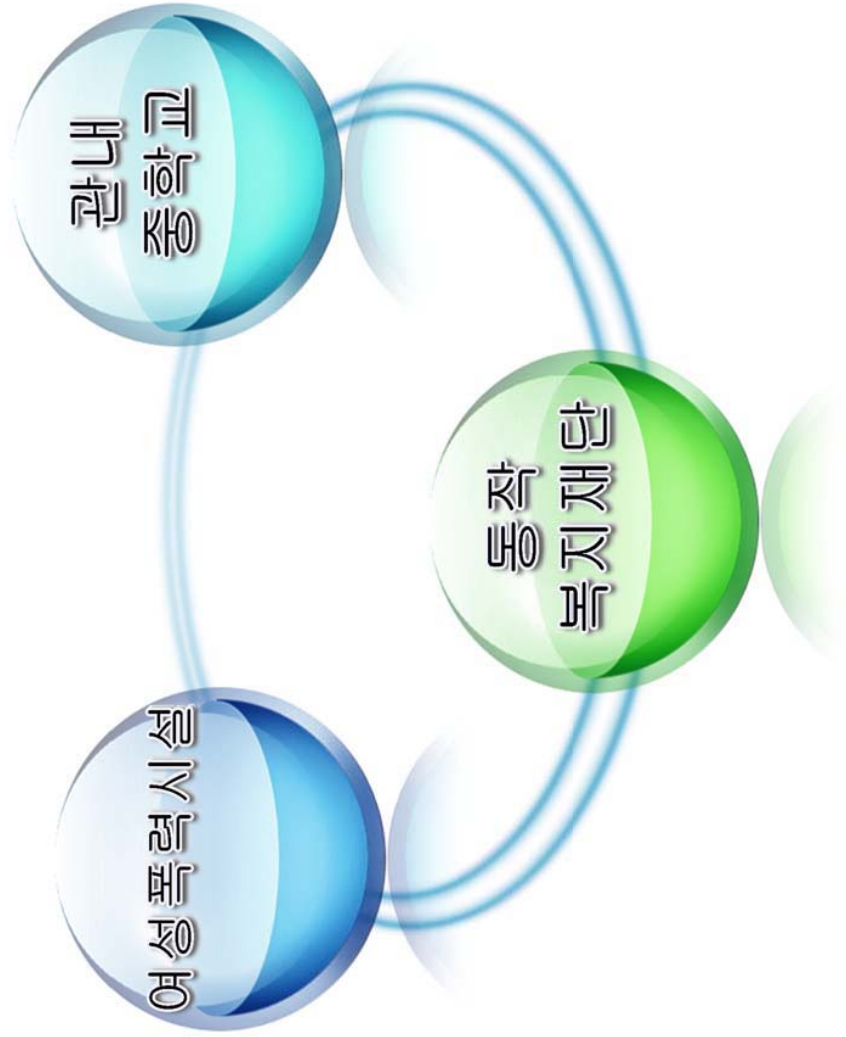
지역 연대 추진 성과: 구의원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대상 : 동작 구의회 전 의원(17명)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청소년 상담지원 연계 사업추진



### 교육 및 홍보활동

- ▶ 중학생 대상 성교육 : 25회
-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 1회
- ▶ 지역아동센터 성교육 : 8기관
- ▶ 교사대상 예방교육 : 4회
- ▶ 청각장애인시설실무자교육: 8회

## 지역 연대 추진 성과: 보호 및 여성 지원 및 위기가족 상담



- 대상 : 여성 가장 등  
보호필요여성
- 지원 : **OA** 회계실무, 급식조리전문 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상담, 알선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상 : 위기가족(이혼, 폭력 등)
- 지원 : 심리상담 및 연계서비스  
전화/방문/사이버 상담

# 지역 연대 추진 중 사업

4

# 지역 연대 추진 중 사업: 아동-여성 안전지도 제작



기간

2010. 10~20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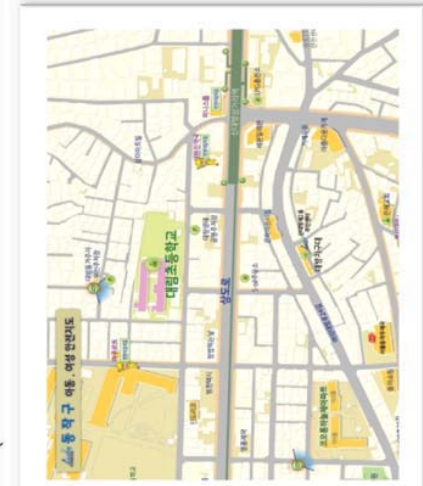
대상지역

**표준지역**

: 대방동~신대방동

**특수지역**

: 상도3동~상도4동



▶ 아동·여성 안전지도

**추진방법**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지도매뉴얼 작성  
등 지도제작



내용

시설인프라, 인적인프라

성폭력범죄정보

안전취약 지역 등 표기

# 지역 연대 추진 중 사업: 아동-여성 위험지역 환경개선



## 추진방법

성폭력 발생, 강도사건 등 위험·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유흥업소 밀집지역, 재개발 철거지역, 폐공가 등 환경개선  
 어두운 지역 보안등 신설 및 보수

## 기대효과

아동여성 안전 취약지역 환경개선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성폭력피해 위험 환경요인 사전제거



‘동네 한바퀴’  
: 주민의 힘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지도 그리기  
아동 안전지킴이집 순회 교육 및 협력

# 앞으로 과제

5



